

50만원짜리 핸드백 반품비용이 32만원이라니...

# 공정위, '불량' 해외구매 대행업체 제재 착수

### 높은 수수료·위약금 요구한 '위즈워드' 등 11개 업체 조사

- 구매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점
- 주문 취소·반품·환불 거부하면 위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 가능
-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사이트 폐쇄 등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대금 지급 중단 가능
- 의류·신발은 사이즈 꼼꼼히 확인
- 사이트 안 맞아 반품하면 음순 변심에 해당돼 높은 반송비 물 수 있음
- 애프터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 국내에 판매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보증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얼마 전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입문한 주부 A씨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50만원짜리 핸드백을 주문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짜퉁'이라 의심될 정도로 품질이 조악했고 보증서도 들어 있지 않았다. A씨는 구매대행 업체에 반품을 신청했지만, 이 회사는 "왕복 항공배송비를 포함해 32만원을 물어내라"며 배짱을 부렸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직구 과정에서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부담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해외소싱 구매 대행업체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한 '위즈워드' 등 11개 해외소싱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며 "올해 3~4월 중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소싱 구매 대행업체는 언어상의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 때문에 해외소싱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이용하는 해외직접배송 방식과 구별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 가량이 구매 대행업체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50만원에 구입한 가방을 막상 받아보니 보증서도 없고,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32만원을 물어내라는 식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사전 고지해놓고는 18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 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일부 작은 업체는 물품 비용만 챙긴 뒤 아예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소싱몰에서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 피해와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뒤처지면 어떡하나' 조바심에 부모도 자녀도 힘들다

### 초등생 월평균 사교육비 37만원 하루 평균 자유시간 2~3시간

초등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공부 부담에 늘려 학생 중 절반 이상은 편히 쉬는 시간이 하루 평균 2~3시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37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학년은 32만원, 4~6학년은 43만원으로 고학년일수록 비용이 더 컸다.

학부모의 74%는 월 소득에서 자녀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다. 학부모의 62.7%가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횟수는 주 3~4회(37.9%)가 가장 많았다. 주 5~6회(33.6%)가 뒤를 이었고 매일 받는 학생도 10%나 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중 52.7%는 자유 시간이 하루 평균 2~3시간에 불과했다.

사교육 유형은 학원(51.1%)이 절반을 넘었고 학습지(15.1%), 그룹과외(10.7%), 개인과외(9.3%) 등의 순이었다. 과목은 영어(73.5%), 수학(54.8%), 음악(37.6%), 체육(32.9%), 국어(22.2%) 등의 순이다. 학부모의 75%는 사교육 증가의 원인(복수 응답)으로 '경쟁 위주의 사회구조'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52.6%), '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37.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으로 '경쟁 위주의 교육·입시 체계 변화'(62.2%), '공교육 중심 입시 제도 강화'(49.1%)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배운성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중 91.3%가 만족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의 다양화, 질적 향상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불안한 유아용 식탁의자... 기준치 최대 93배 납 검출

### 소비자시민모임 7개 검사 제품 중 4개 부적합 판정

#### 비와이케이·아발론 하이프렌즈·엔젤키드 퍼니·우드파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식탁의자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최대 93배 검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유아용 식탁의자 7개 제품을 선정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 검사를 의뢰,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이 검출됐다.

납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 JISKO-02'로, 코팅연두 제품은 기준치의 무려 93.4배인 8405mg/kg, 코팅연두 흰색경쟁 믹스 제품은 기준치의 77배인 6929mg/kg이 각각 검출됐다.

베트남에서 제조된 '아발론 하이프렌즈 ABA-체어(히포)'와 '엔젤키드퍼니'는 기준치의 1.9배인 300mg/kg, '우드파크 유

아용 접이식 원목식탁의자(엔틱)'는 기준치의 1.7배인 522mg/kg의 납이 각각 검출됐다.

이중 '엔젤키드 퍼니' 안전장치 성능시험에서 유아모형이 이탈되는 등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 역시 측방 안전성 시험에서 의자가 넘어지거나 다리가 마트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식탁의자'는 안전장치 성능과 안정성 시험에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유아용 식탁의자는 유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임에도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식탁의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아발론 하이프렌즈 ABA-CHAIR, 엔젤키드퍼니1,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 비와이케이 JISKO-02 유아식탁의자.

한편 아발론 하이프렌즈를 수입한 아이플러스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인조 가죽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수리를 요구할 경우 교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젤키드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한 P&B 역시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인조가죽 제품의 좌석을 원목으로 수입·판매하고, 안전장치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포장지 속 실제 과자 비율 표시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 검토

과자류의 과대 포장 논란을 막으려면 최종 포장과 실제 과자류의 양과 비율을 소비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질소총량 등 과자류 과대 포장의 일차적 이유는 맛을 보존하고 유통 과정에서 충격에 따른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완충재나 반직접시 등을 넣어 유통 과정에서 과자류가 부서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용기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회사들이 이런 기본적인 필요성을 넘어서 고가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릴 때 포장재를 바꾸면서 과대포장을 하는 경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자언이나 부피 등 포장 부분에 변화를 줘서 높아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을 줄이려는 꼼수 때문이다.

또 현재 대부분의 과자류는 포장재의 종류와 실제 들어있는 과자류의 양에 대한 정보만이 표기돼 있을 뿐 과자류의

양과 포장 공간의 비율 등은 확인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 최종 포장과 실제 들어있는 과자류의 양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율 측정 시에도 1차 포장과 최종 상자의 공간 비율이 아니라 실제 내용물(과자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식품업체가 생산하는 과자류의 새로운 포장 유형 등을 모니터링하고, 같은 종류의 수입 과자 용적률보다 높지 않도록 당국이 비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과대포장 방지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과자류 제품 유형이나 포장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포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3>신축 원룸 매매</h3> <p>전대정문 2분(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상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 앞 금호아파트 사이트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p> <p>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11개 룸20개(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② 용해동 용해동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③ 동구 대인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④ 전대정문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1층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⑥ 생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p> <p>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p>	<h3>상가건물매매</h3> <p>(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 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p> <p>① 나주시 상명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200만, 매매가 2억9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③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④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p> <p>(주)대신 010-6670-9800</p>	<h3>상무지구</h3> <p>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통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p> <p>010-6670-9800</p>	<h3>(주)대신경매</h3> <p>(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로상담해드림')</p> <p>근린시설/근린주택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② 순천시 연향동 (토 146㎡, 건물 276㎡) 감평가 5억7천, 최자가 5억7천 ③ 순천시 장천동 (토 423.1㎡,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5억7천 ④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천, 최자가 3억5천 ⑤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백, 최자가 5천백 ⑥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9천, 최자가 24억 ⑦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8천, 최자가 4억9천 ⑧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p> <p>근린상가 ⑤ 서구 차평동 (대 37㎡, 건물 165㎡) 감평가 3억6천, 최자가 1억 ⑥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자가 5천백 ⑦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백 ⑧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35㎡) 감평가 6억5천, 최자가 4억5천백 ⑨ 광산 월계동 감평가 2억2천, 최자가 7천백 ⑩ 서구 풍림동 감평가 8억7천, 최자가 4억8천</p> <p>주요소 ① 서구 미륵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6억9천백 ② 남구 안촌동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9천 ③ 광산구 북동동 감평가 8억8천, 최자가 8억9천</p> <p>토지 ① 서구 매림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자가 2억4천7백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백, 최자가 9천4백</p> <p>010-6670-9800 / 062)382-5500</p>	<h3>경매학원</h3> <p>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경매학원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예반)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①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 7시30분~9시) ② 목요일 오후 7시30분~오후 9시 경매 컨설팅 해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p>
--	--	--	---	--